

여수,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애주기 인구정책' 본격화

시, 4394억 투입...청년 자립기반 마련 통합 지원 신혼·출산·보육서 중장년·노년까지 실효성 강화

여수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국비 2739억원, 도비 488억원, 시비 1167억원 등 4394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은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부터 신혼·출산·보육 지원, 중장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117억원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은 청년근로 근속장려금 지원, 청년맞춤형 인턴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 안정과 지역 내 경제 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여수시는 최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는 최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는 최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강 지원을 강화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85억원을 지원한다. 긴급 주말 돌봄 어린이집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등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봉황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지원 확대와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중장년·노년층 지원에 1847억원을 투입한다.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중년 잠재력 지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

려금 지원 등 신중년 대상 사업도 추진한다. 일자리·복지·돌봄 정책을 강화해 활기찬 고령 친화 기반을 다진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자선기(PM) 보험, 섬주민·시민여객선 운임 지원을 비롯해 시민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433억원을 차지한다. 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은 월 20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요금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신정치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2026년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수=송영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장흥, 개학기 유해환경 점검 청소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흥군은 최근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장흥군

장흥군은 최근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교 주변과 변화가 등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기관 관계자들은 현장 계도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위반 여부와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양,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운영

고흥,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소득 안정 지원...내달 30일까지

국비 6억 투입...예체능 맞춤형 교육 제공

고흥군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시기별로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문자나 카카오톡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간편 신청'(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다음달 30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는 '방문 신청'(다음달 1~30일) 등이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군은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는 온라인 신청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4월 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양시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플랫폼은 지역아동센터 18개소, 돌봄센터 9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 등 지정된 37개소에서 운영되며, 사업에는 국비 6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을 고도화한 플랫폼이다. 기존 플랫폼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대상을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구축한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예체능 교육을 통합 제공한다. 특히 아동의 재능 개발을 돕기 위해 방송 댄스와 온라인 드로잉을 배우는 K-컬처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교과 학습과 예체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K-컬처, AI 코딩, 학습 멘토링 서비스는 다대일(1대N) 방식의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K-컬처 프로그램은 주 2회 편성되며, K-팝 댄스를 배우는 '할렐렐스팀'과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는 '감성창작팀'으로 나눠 진행된다.

AI 코딩 교육은 AI 코딩 블록을 활용해 아동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체험 활동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모션 인식과 바닥 센서 기술을 활용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이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신체 활동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교육 소외계층 아동에게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1년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발전시키고, 지역 청소년이 다양한 재능을 키우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11년 숙원사업 마침표' 순천 조례사거리 교통 개선

시,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 16일 개통

순천시는 조례동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11년 이상의 오랜 공사 끝에 완료됨에 따라 16일 오후 2시 현장 일원에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착공 이후 총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해 추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장 662m, 폭 20~25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조례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으로 인한 통행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으로, 이번 도로 개설을 통해 조례사거리로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법원 방면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고압선로 지중화 공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인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암절취 방식을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주변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림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은 조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 주민 안전·생활 편의 행정 집중 교통·재난 대비 체계 강화...'군민 체감 밀착 행정 최선'

곡성군은 최근 청사 대통마루에서 3월 정례회를 열고 봄철 산불 예방과 전 군민 무료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과 안전 중심의 적극적인 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이 안전하고 편해질 수 있도록 산불과 가족 전염병 등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체감형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에 나선다.

3월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한 농산 폐기물 소각이 늘어나고 등산객 입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산림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보와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군민 무료버스 운영과 관련해 지역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이후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병원 진료, 전통시장 이용, 이웃 방문 등 생활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래 군수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생활 밀착 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곡성군은 최근 청사 대통마루에서 3월 정례회를 열고 봄철 산불 예방과 전 군민 무료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주요 군정 현안을 살피며 민생과 안전 중심의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해 갔다. 사진제공=곡성군

'일상을 예술로 가꾸는 가드닝 배워요' 구례,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구례군은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양성 기초과정' 교육생 20명을 오는 20일(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은 단순한 식물 재배를 넘어 개인의 주거 환경과 주변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교육생들은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정원 조성 실습까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지도를 받게 된다.

기초과정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1일 7시간) 진행된다.

아울러 정원 설계·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기초과정 이수자와 관련 분야(산림, 원예, 조경 등) 전공자·종사자 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국

립정원문화원(전남 담양군)에서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거 공간을 예술처럼 가꾸는 가드닝 문화를 통해 일상 속 정원이 늘어나고 군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